

루멘텀 홀딩스 (LITE.US)

실적으로 일축한 CPO 노이즈, NPO로 넓어지는 TAM

- 4Q GPM 50% 조기 돌파 및 1Q 가이드스 상향으로 이익 체력 입증
- 심화된 레이저 공급 부족 속 NPO 가세로 스케일업 성장축 다변화
- OCS 양산 가속 및 이익 추정치 상향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FY26Q4 실적: 가이드스 상단 돌파 및 마진 목표 조기 달성

루멘텀 홀딩스(LITE)의 4Q(6 월 마감) 매출액은 \$1.01B(+109% YoY, +25% QoQ)를 기록하며 가이드스(\$960M~\$1,010M) 상단에 착지, 컨센서스를 약 2% 상회했다. 이는 8 개 분기 연속 성장이자 3 개 분기 연속 20% 이상의 QoQ 성장이다. Non-GAAP 매출총이익률(GPM)은 50.4%(+250bps QoQ)로, 당초 분기 매출액 \$2B 도달 시점의 목표였던 50% 선을 절반 수준의 매출에서 조기 돌파했다. 영업이익률 36.6%와 EPS \$3.23 역시 가이드스 상단(36.0%, \$3.05)을 모두 넘어서며 컨센서스를 각각 140bps, 9% 상회했다.

어닝콜 하이라이트: 더 벌어진 공급 격차, 그리고 NPO

경영진은 AI 광학 네트워킹 분야의 수요-공급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주었다. EML 은 30% 이상 공급 부족이 지속 중이며, CPO 향 초고출력 레이저는 수요 가속으로 공급이 가장 크게 뒤쳐진 영역이 됐다. 펌프 레이저(+80% YoY)는 사실상 완판 상태로 향후 수 분기 내 출하 4 배 증설을 계획 중이고, 고객들과 3 년 만기 take-or-pay 장기공급계약(LTA)을 다수 체결해 증설 CapEx 부담을 상쇄했다. 이번 쿼의 최대 화두는 NPO(Near-Packaged Optics)였다. 경영진은 NPO 를 CPO 의 대체재가 아닌 TAM(총시장규모) 확대의 기회로 규정했다. 중국 InP 신규 팹 경쟁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에 실물 출하가 없으며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밸류에이션: 주가보다 빠르게 오르는 이익 추정치

실적 발표 다음 날 LITE 의 주가는 13.6% 급등했고 이후 4 거래일 누적 18% 상승한 \$968.90(8/17)로 52 주 최고가(\$1,085.68) 대비 11% 이내로 재접근했다. 발표 전 3 개월간 CPO·NPO 관련 노이즈로 20% 이상 조정받았던 주가가 실적과 가이드스로 우려를 정면 반박한 셈이다. 주목할 점은 급등에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것이다. 발표 후 컨센서스 EPS 가 FY27 \$21.1, FY28 \$33.1로 발표 전 대비 각각 약 14%, 11% 상향되면서 12M Fwd PER 은 지난 분기 리뷰 시점의 약 57 배에서 약 43 배로 하락했으며, 이익 성장률을 감안한 PEG 는 0.33 배로 성장 대비 저평가 매력이 유지되고 있다.

▶ 현재주가 / 목표주가 컨센서스

현재주가('26.08.17): \$968.90

목표주가 컨센서스: \$1130.23

▶ 투자 의견 컨센서스

매수	보유
87%	13%

Stock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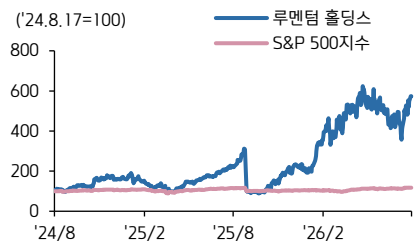
산업분류	통신 장비
S&P 500 (8/17)	7,745.06
현재주가/목표주가	968.9 / 1130.23
52주 최고/최저 (\$)	1085.68 / 111.2
시가총액 (백만\$)	85,845
유통주식 수 (백만)	89
일평균거래량 (3M)	5,318,404

Earnings & Valuation

(백만 \$)	FY25	FY26	FY27E	FY28E
매출액	1,645	3,014	6,174	9,448
영업이익	160	897	2,523	4,074
OPM(%)	9.7	29.8	40.9	43.1
순이익	146	782	2,164	3,487
EPS	2.06	8.67	21.11	33.11
증가율(%)	104.0	320.9	143.4	56.9
PER(배)	217.2	125.9	45.9	29.3
PBR(배)	5.8	15.6	12.4	8.3
ROE(%)	2.5	-240.0	32.5	39.3
배당수익률(%)	-	-	0.0	0.0

Performance & Price Trend

주가수익률 (%)	YTD	1M	6M	12M
절대	162.9	32.2	63.0	714.3
S&P Index	13.1	3.9	12.6	20.1



자료: Bloomberg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 주) Non-GAAP 기준

FY27Q1 가이드언스: 한 분기 앞당겨진 \$1.25B 목표 달성과 마진 레벨업

동사가 제시한 차기 분기(FY27Q1) 매출액 가이드언스는 \$1.225B~\$1.275B 로, 중간값 기준 \$1.25B(+130% YoY)다. 이는 지난 3 월 OFC 에서 제시했던 중기 매출 목표를 한 분기 이상 앞당겨 달성하는 수치이자, 실적 발표 직전 형성된 시장 컨센서스를 약 9% 상회하는 수준이다. 수익성 가이드언스 역시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다. Non-GAAP 영업이익률 가이드언스는 39.5~40.5%(+2,100bps YoY)로 해당 매출 레벨에 연동된 타깃 모델의 상단을 상회했으며, EPS 가이드언스(\$4.05~\$4.35) 또한 컨센서스를 약 17% 상회하며 가파른 영업 레버리지 확대를 예고했다.

외형 성장의 동력은 사업부 전반에서 균형 있게 나타날 전망이다. 경영진은 차기 분기 순차 성장(QoQ)의 약 절반은 스케일아웃(Scale-out) 및 스케일어크로스(Scale-across) 수요가 견인하는 컴포넌트(Components) 부문에서, 나머지 절반은 1.6T 트랜시버 양산과 OCS 출하 가속화가 이끄는 시스템스(Systems)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제시했다. 특히 4 분기 초도 출하를 시작한 1.6T 광트랜시버의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OCS 는 사상 첫 분기 매출 \$100M 돌파가 가이드언스에 반영되는 등 2026 년 하반기 \$400M 이상 수주 이행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가속화에 힘입어 중장기 수익성 눈높이도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경영진은 분기 매출 \$2B 도달 시점의 영업이익률 타깃(기존 38~42%)에 대해 기존 상단이었던 "42%를 중간값으로 삼아 100~200bps 추가 상향될 것"이라 밝히며, 차기 OFC 에서 공식 재무 타깃을 재설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단기 주가 흐름을 견인할 주요 관전 포인트는 9 월 유럽 광통신 전시회(ECOC, 9/20~24)와 11 월 초 FY27Q1 실적 발표다.

주가 흐름 및 뉴스 플로우: CPO 지연 노이즈, 실적으로 반박하다

동사 주가는 지난 3Q 실적 발표(5/5) 직후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한 뒤 가파르게 반등하며 5 월 중순 장중 사상 최고가(\$1,085.68)를 경신했다. 그러나 6 월 초 SemiAnalysis 가 CPO 상용화 지연 리포트(2027 년 출하량 기대치 하회 및 본격 양산의 2028~2029 년 이연 가능성)를 발간하며 광학 섹터 전반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냉각됐다. 여기에 7 월 말 알파벳(GOOG)의 상장 후 첫 분기 FCF 적자 전환으로 AI 인프라 투자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가세하자, 주가는 5 월 고점 대비 42.8% 급락한 \$602.35(7/29)까지 밀리며 깊은 조정을 겪었다.

반전의 계기는 빅테크의 공격적인 투자 기조와 정책 모멘텀, 그리고 압도적인 실적에서 비롯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FT)·아마존(AMZN)·메타(META) 등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의 2026 년 합산 CapEx 가이드언스가 전년 대비 78% 증가한 약 \$730B 수준으로 확대되며 AIDC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아울러 8 월 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광트랜시버에 대한 수입 금지 초안(FCC Covered

List 등재 방식, 연내 공표 목표)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미국계 광부품 밸류체인인 반사이익 기대감을 자극했다. 이러한 우호적 환경 속에 발표된 4Q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대폭 상회하자, 주가는 실적 발표 익일 13.6% 급등하며 단숨에 전고점 부근까지 회복됐다.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 확인된 핵심은 '여전히 견고한 전방 수요'다. LITE 를 비롯해 코히런트(COHR), 패브리넷(FN), 코닝(GLW) 등 광통신 밸류체인 전반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제시하며 CPO 상용화 시점 논란을 압도하는 구조적 수요를 입증했다. 다만, 연초 이후 밸류에이션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종목별 주가 반응은 차별화됐다. 실적 발표 전 조정 폭이 깊었던 LITE 는 강한 반등 탄력을 유지한 반면,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COHR 과 FN 은 호실적 확인에도 불구하고 단기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LPO·NPO·CPO: 시장의 양산 로드맵 수렴과 TAM 논쟁의 본질

이번 실적 시즌을 거치며 차세대 광학 아키텍처의 상용화 일정은 한층 더 구체화되었다. LPO 는 1.6T 세대(Vera Rubin 의 NIC 단)부터 기존 플러거블 트랜시버와 병행 채택이 시작됐으며, 스케일아웃(Scale-out)용 CPO 스위치는 이미 양산 출하가 시작했다. 최대 관심사인 스케일업(Scale-up) 광학의 경우, SerDes 속도가 임계치를 넘어서는 차세대 반도체(2027 년 중후반) 탑재가 필수적이어서 기존 칩에 대한 사후 개조(Retrofit)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장의 침투 경로는 '2027 년 4 분기 NPO 출하 개시 - 2028 년 램프업 - 2028 년 하반기 랙 내부 CPO 출하 - 2029 년 전면 배치'의 단계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 월 SemiAnalysis 發 리포트로 2027 년 CPO 물량에 대한 눈높이는 낮아졌으나, 2028 년 본격 개화에 대해서는 시장 내 보수적인 진영에서도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특히 엔비디아(NVDA) 로드맵과의 연동성에 대해 경영진은 시장 일각의 오해를 명확히 일축했다. 스케일업 광 수요를 단순히 'Kyber 랙(Rubin Ultra)' 출시 일정에 종속된 것으로 보는 시각과 달리, 멀티 랙 클러스터 구조가 존재하는 한 랙 간(North-South) 광 연결 수요는 Kyber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필수적으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즉, 랙 간 광 연결을 본격 확장하는 Kyber 와 랙 내부까지 전면 광 전환이 예상되는 Feynman(2028 년~)은 CPO 물량의 상방(Upside)을 결정하는 변수일 뿐, NPO 및 ELS 수요 발생의 선행 조건은 아니다.

밸류체인 내 주도권은 계층별로 뚜렷하게 나뉜다. 어드밴스드 패키징과 광학 표준은 NVDA 와 파운드리(TSMC 등)가 주도하는 반면, 핵심 광원인 고출력 레이저는 외부 조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적 과점 병목(Bottleneck) 영역이다. 지난 3 월 NVDA 가 LITE 와 COHR 에 각각 \$2B 규모의 선급금을 지급하며 광원 생산능력을

선제적으로 락인(Lock-in)한 배경이다. 특히 동사는 초고출력 및 ELS 레이저 분야에서 사실상 직접적인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단, 광 엔진 내장형 미드파워 레이저는 디자인원 확정 전 단계).

결국 현시점 시장의 핵심 관심사는 'NPO 가 광학 TAM 의 순증(Incremental)을 이끌어내는가'로 모아진다. 리드 고객사 외 자체 ASIC 진영에서 NPO 도입 의지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이 대부분 ELS 형태의 외부 광원을 채택함에 따라 해당 탑재 가치(Content) 역시 CPO 에 필적하거나 이를 웃돌고 있다. CPO 전면 도입을 2020 년대 말로 늦춰 보는 보수적인 하우스들조차 NPO 를 CPO 로 가기 전 공백을 메우는 확실한 징검다리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주가의 추가 탄력은 경영진이 예고한 2~3 분기 내 대규모 공식 수주 발표를 통한 정량적 검증에 달려 있다.

투자 포인트: 겹겹이 쌓이는 성장축과 구조적 마진 상황

(NPO: 스케일업의 두 번째 성장축) 시장 일각의 CPO 상용화 지연 우려와 달리, 스케일업(Scale-up) 광학의 침투 경로는 NPO 의 가세로 한층 다변화되고 있다. NVDA 로 추정되는 리드 CPO 고객사의 양산 계획은 차질 없이 순항 중이며, 전방 수요 시그널은 지난 분기 대비 더욱 강화됐다. 여기에 리드 고객 외 다수의 빅테크 진영이 빠른 시장 진입(Time-to-Market)을 위해 NPO 를 중간 가교로 적극 채택하고 있다.

NPO 는 대부분 동사의 고출력 레이저 기반 ELS(외장 광원) 모듈 방식을 적용해 해당 탑재 가치(Content)가 CPO 와 사실상 동등하며, 광 엔진 통합형 미드파워(120~150mW) 레이저 수요까지 가세해 고객 저변이 확장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4Q27 NPO 출하 개시 → 2H28 랙 내부 CPO 출하 → 2029 년 전면 배치'로 이어지는 2027~2029 년 중장기 성장 동력이 층층이 누적되는 구조가 완성됐다.

(공급 부족과 가격 결정력) EML 의 30% 이상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는 가운데, 초고출력 레이저는 수요 폭증으로 공급 부족 격차가 더욱 확대되며 강력한 판가(ASP) 프리미엄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점유율 70~80%를 확보한 펌프 레이저는 고객사가 증설 CapEx 를 부담하는 3 년 단위의 '의무 인수(Take-or-Pay)' 장기 공급 계약(LTA)을 대거 체결했다. 지난 분기 논의 단계에 있던 계약들이 실제 체결로 진전된 것이며, 특정 조건 충족 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조항까지 확보했다.

아울러 다이(Die) 크기 축소로 마진 구조를 대폭 개선한 CW 레이저 역시, 극도로 균일한 스펙을 통한 고객 수율 개선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가 대비 높은 프리미엄에

외판을 확대 중이다. 4 분기 GPM 50% 조기 돌파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이러한 제품 믹스 개선과 가격 결정력이 만들어낸 구조적 체질 개선의 결과물이다.

(OCS: 유일한 상용 공급자) 전분기 대비 출하량이 2 배 급증한 데 이어, 1Q27 가이드스에 사상 최초의 분기 \$100M 돌파가 반영되며 2026 년 하반기 \$400M 이상 수주 이행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 GOOGLE 로 추정되는 주요 고객사의 자체 생산 물량을 넘어서는 신규 출하량의 대부분을 동사가 흡수하면서, 2027 년 초에는 해당 고객사 내 1 위 공급자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해 위탁생산(CM) 파트너십을 통한 CAPA 확장도 이미 착수했다. 여기에 2028 년부터 개화할 고·저 포트카운트 및 인-트레이(In-tray) 등 맞춤형 파생 라인업은 OCS 의 TAM 을 한 단계 더 확장시킬 것이다. 대규모 상용 양산 트랙레코드를 갖춘 사실상 유일한 상용(Merchant) 공급자로서, OCS 신규 도입을 검토하는 글로벌 빅테크 진영의 'First Call'을 확고히 독점하고 있다.

(정책 모멘텀과 그린즈버러 팍) 美 정부의 중국산 광트랜시버 수입 금지(FCC 커버드 리스트 등재) 규제가 구체화될 경우, 동사는 미국계 광학 부품 밸류체인인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린즈버러(Greensboro) 팍은 2028 년 초 첫 매출 발생을 목표로 GaAs 에서 InP 로의 공정 전환이 순항 중이며, 잔여 생산능력에 대한 신규 고객사와의 장기 공급 계약(LTA)이 향후 2~3 분기 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는 2028 년 이후 동사의 중장기 매출 잠재력이 현실화되는 핵심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주요 고객사의 차기 제품 사이클에 연동된 3D 센싱 응용처 확대 역시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간과되고 있는 추가적인 옵션 가치다.

리스크 요인: 높아진 눈높이가 야기하는 변동성

(Macro) AI CapEx 사이클 둔화 및 내러티브 변화에 따른 고베타 리스크

빅테크 기업들의 잉여현금흐름(FCF) 악화와 부채 조달 확대는 향후 AI 인프라 투자 속도 조절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주기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확인되었듯, 광통신 섹터는 실질적인 전방 수요의 훼손이 없더라도 시장의 CapEx 관련 내러티브 변화만으로 멀티플 압축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베타 영역이다.

(Industry) 차세대 아키텍처 일정 지연 및 지정학적 공급망 불확실성

NPO 및 CPO 의 본격적인 양산 램프업은 2027 년 중후반 차세대 실리콘 출시 일정에 직결되어 있어, 주요 팹리스의 GPU/ASIC 로드맵이 지연될 경우 관련 광학 부품의 매출 인식 시점 역시 지연될 위험이 상존한다. 아울러 1.6T 세대에서 실리콘 포토닉스(SiPh) 채택 가속화에 따른 EML 믹스 변화, 중국계 인듐인(InP) 팍의 실제 양산 출하 개시 여부도 중기적인 모니터링 변수다. 또한 미국의 중국산 광트랜시버

수입 금지 조치가 무산되거나, 반대로 중국이 InP 기판 등 핵심 원소재 수출 규제에 맞대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교란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Company) 소수 고객사 집중도와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

동사 매출이 소수 하이퍼스케일러 및 특정 리드 고객사에 편중되어 있어, 주요 고객사의 네트워크 아키텍처 변경이나 자체 내재화(In-sourcing) 결정이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또한 광 엔진 내장형 미드파워 레이저의 디자인권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NPO 관련 공식 수주 발표가 지연될 경우 12M Fwd PER 43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단기 주가 되돌림에 취약할 수 있다. 한편, 주가 급등에 따른 전환사채(CB) 주식 전환 등으로 늘어난 주식 수(Non-GAAP 희석 기준 약 102M 주) 역시 주당순이익(EPS) 성장을 일부 희석시키는 요인이다.

루멘텀 홀딩스 주요 중장기 목표 및 마일스톤 트래킹

지표 / 목표	기존 제시 가이드언스	FY26Q4 실적콜 업데이트	진행 상황
재무 목표			
분기 매출 \$1.25B	• OFC 2026 (3 월) 중기 목표	• FY27Q1 가이드언스 중간값으로 조기 달성 • 계획 대비 1 개 분기 이상 단축	조기 달성
GPM (총마진율) 50%	• 분기 매출 \$2B 도달 시점 타깃	• FY26Q4 50.4% 기록하며 조기 달성	조기 달성
OPM (영업마진율) 타깃 (\$2B 매출 시점)	• 38 ~ 42% (OFC 2026 제시)	• 중간값 42% 기준 100~200bp 상향 시사 • 차기 OFC 에서 신규 타깃 공개 예정	상향 예고
제품 & 기술			
초고출력 레이저 (CPO)	• 2H CY26 램프 확대 (2 월) • CY26 말 유의미한 매출 '온스케줄' (5 월)	• CY26 말 ~\$50M 전망 • FY27Q3 첫 \$100M+ 분기 달성 전망	구체화
OCS (광회선스위치)	• 분기 \$10M+ 런레이트 달성 (2 월) • 멀티티어·수십억 달러 구매계약 이행 (5 월)	• 출하량 QoQ 2 배 성장 • FY27Q1 첫 \$100M+ 분기 가이드언스 반영	상향
1.6T 트랜시버	• FY26Q4 램프 온트랙 • 내재 CW 레이저 통합 개시 (5 월)	• FY26Q4 초도 출하 개시 • FY27Q1 부터 본격적인 수요 확대	이행
펌프 레이저	• YoY +80% 성장 • 수 분기 내 출하량 4 배 증설 계획 (5 월)	• YoY +80% 성장세 지속 • 3 년 장기공급계약(LTA, Take-or-pay) 다수 체결	강화
200G EML 비중	• 데이터콤 칩 매출의 ~10% (2 월)	• EML 매출 내 25% 이상 비중 확대	가속
NPO / ELS	—	• 첫 ELS 모듈 수주 (2H CY27 납품 예정) • 복수 고객사와 NPO 인계이전먼트 진행	신규

자료: 루멘텀 홀딩스, 키움증권 리서치

주: 1) Non-GAAP 기준, 2) 제시 시점은 각 분기 실적 발표 및 OFC 2026(3월), 3) 200G EML 비중은 제시 시점별 기준 상이

루멘텀 홀딩스 분기 가이드스 vs 실적

구분	FY26Q3		FY26Q4		FY27Q1
	가이드스	실적	가이드스	실적	가이드스
매출액	\$780M~\$830M	\$808.4M (중간값 상회)	\$960M~\$1,010M	\$1,006.3M (상단 근접)	\$1,225M~\$1,275M
Non-GAAP OPM	30.0~31.0%	32.2% (상단 초과)	35.0~36.0%	36.6% (상단 초과)	39.5~40.5%
Non-GAAP EPS	\$2.15~\$2.35	\$2.37 (상단 초과)	\$2.85~\$3.05	\$3.23 (상단 초과)	\$4.05~\$4.35
회석주식수	92.0M	95.2M	102.0M	101.1M	102.0M

자료: 루멘텀 홀딩스, 키움증권 리서치

주: 1) Non-GAAP 기준, 2) 가이드스는 각 직전 분기 실적 발표 시 제시

루멘텀 홀딩스 FY26Q4 ('26.03.01~06.27)

구분	FY26Q4	컨센서스 비교		YoY 비교		QoQ 비교	
(백만 달러)	발표치	컨센서스	차이	FY25Q4	성장률	FY26Q3	성장률
매출액	1,006	990	1.7%	481	109.3%	808	24.5%
영업이익	369	351	5.0%	72	410.1%	261	41.5%
영업이익률(%)	36.6	35.5	1.2	15.0	20.5%p	32.2	4.4%p
순이익	326	300	8.9%	63	415.5%	226	44.6%
EPS	3.23	2.97	8.9%	0.88	267.0%	2.37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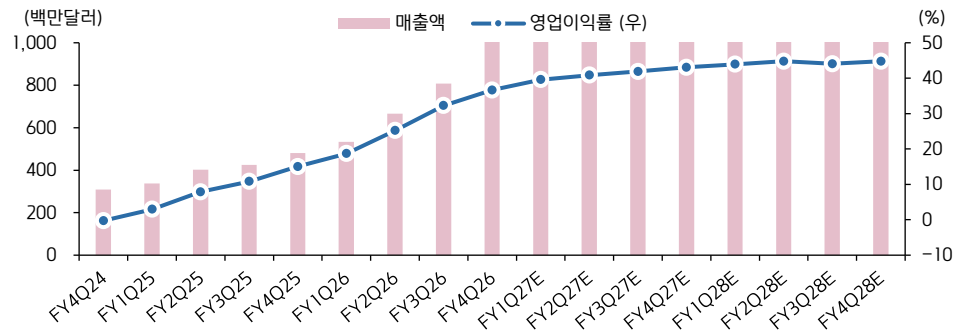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8-17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루멘텀 홀딩스 향후 실적 컨센서스 표

구분	분기 컨센서스				연간 컨센서스			
(백만 달러)	FY27 Q1 컨센	YoY	FY27 Q2 컨센	YoY	FY27	YoY	FY28	YoY
매출액	1,253	134.7%	1,462	119.6%	6,174	104.8%	9,448	53.0%
영업이익	496	396.8%	597	256.0%	2,523	181.2%	4,074	61.5%
영업이익률(%)	39.6	20.9%p	40.8	15.6%p	40.9	11.1%p	43.1	2.3%p
순이익	429	396.2%	514	257.2%	2164	176.7%	3,487	61.1%
EPS	4.21	282.4%	4.98	198.3%	21.11	143.4%	33.11	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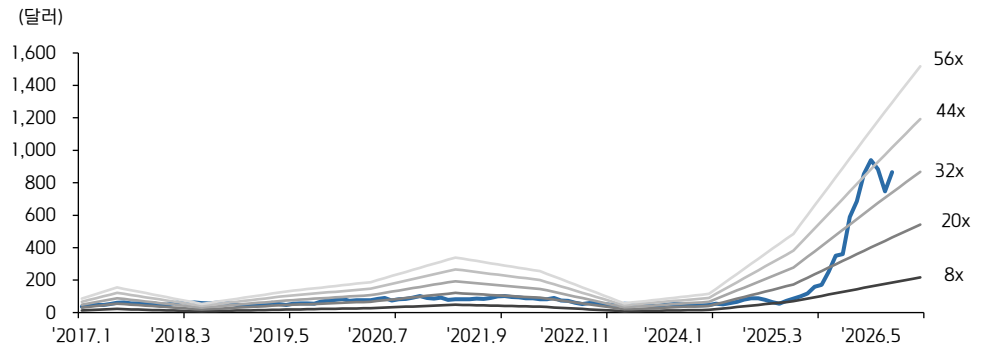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8-17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루멘텀 홀딩스 분기 실적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8-17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루멘텀 홀딩스 12M FWD PER 밴드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8-17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루멘텀 홀딩스 상세실적표

(백만 달러)	FY25Q4	FY26Q3	FY26Q4	YoY(%)	QoQ(%)
[GAAP]					
순매출액	481	808	1,006	109.3	24.5
부품 매출액	320	533	649	102.7	21.8
시스템 매출액	160	275	357	122.6	29.7
매출원가	302	432	510	69.1	18.0
무형자산상각비	19	19	19	-0.5	-0.5
매출총이익	160	357	477	198.5	33.7
연구개발비	80	91	104	31.3	15.2
판매관리비	84	91	91	9.1	0.4
구조조정 및 기타 관련 비용	5	1	2		
영업이익	-8	175	279	흑전	60.1
전환사채 소멸 손실(비현금) ¹	0	0	-7,757		
순이자비용	-5	-6	-4		
기타 순이익	2	16	23		
세전이익	-11	184	-7,458	적지	적전
법인세비용	-225	40	-297		
순이익	213	144	-7,162	적전	적전
회석 EPS (USD)	2.96	1.50	-84.65	적전	적전
회석 가중평균주수 (백만)	72	96	85	17.5	-12.1
주요 영업지표 [Non-GAAP]					
매출총이익	182	387	507	179.1	31.0
영업이익	72	261	369	410.1	41.5
순이익	63	226	326	415.5	44.6
EBITDA	99	294	406	311.8	38.5
회석 EPS (USD)	0.88	2.37	3.23	267.0	36.3
회석 가중평균주수 (백만)	72	95	101	40.4	6.2

자료: 루멘텀 홀딩스, LSEG,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매출원가는 무형자산상각비 제외 기준(회사 손익계산서 표기 방식). FY26 3Q 매출원가·무형자산상각비·순이자비용·기타 순이익은 회사 공시 조정표(GAAP-Non-GAAP recon-EBITDA recon) 기준. EBITDA는 회사 공시 Adjusted EBITDA 기준

¹ FY26Q4 GAAP 순손실 \$7.2B(EPS -\$84.65)은 전환사채 일부(잔액의 약 35%, \$1.1B)를 선제적으로 주식 전환하며 인식한 일회성 비현금 손실 \$7.8B을 반영. 동 거래로 부채가 감소하며 순현금 구조로 전환됐고, GAAP 영업이익은 \$279.3M 흑자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